

나주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빛났다

전남 지자체 유일 복지부 평가 '우수' 선정...아동학대 예방 체계·사례 등

나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구축 평가'에서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구축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측정,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지원, 학대 피해 아동 분리보호 및 회복 지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7개 항목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전국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시상했다.

나주시는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개편 시행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담부서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시는 아동보호팀 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개편체계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학대 피해 가정 회복 지원, 민간기관과 협업·공조를 통한 아동학대 선제 예방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3월 국립나주병원·나주종합병원·빛가람종합병원과 도내 최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목받았다.

전담 의료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나주시는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주시 제공>

조치와 신체·정신적 검사·검진 등을 지원하며 촘촘한 아동 돌봄망 구축에 힘을 보탤다.

이 밖에도 관내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아동학대에 방 특별예방교육', 경찰서·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에 주력했다.

지난 달 19~25일엔 아동학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양육시설·초등학교 등이 참여하는 'STOP! 아동학대' 다짐 릴레이와

모바일 알람장 발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데 힘썼다.

나주시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 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민·관 합동 고병원성 AI 차단 '총력'

광역방제기·드론 등 총동원 통제초소 24시간 운영

함평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인접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철새도래지와 AI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AI 주요 감염 경로인 고막원천 등 철새도래지 방역을 위해 살수차 2대, 광역방제기 4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통제초소 6개소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가금농장 가축 사육 환경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또 오리농장의 경우 입식 전 방역시설 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승인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농가들도 힘을 보탤다. 특히 군으로부터 농업용 드론을 지원받은 농가들이 지역사회 환원 및 재능 기부 일환으로 드론을 이용한 소독활동을 지원하며 힘을 보탤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고병원성 AI가 아직까지 함평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에서 도 AI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역 농가들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AI 차단 방역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함평군 제공>

장성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00명 모집

장성군이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00여 명을 모집한다.

군은 내년도에 3개 유형,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형과 사골할머니 장터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익형은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 경로당 도우미, 공공시설지원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월 30시간 참여 시 월 2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골할머니 장터형은 월 30시간 참여 시 월 25만원의 활동비와 판매수익금 배분액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월 60시간 참여 시 월 5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농식품유통업무 '최우수상'

전남도 평가 2관왕

강진군이 2021년 전남도 농산물 유통업무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식품유통업무 평가는 전남도가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구축 및 품질관리, 쌀 판매 및 브랜드 쌀 육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에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한다.

강진군은 농식품유통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으로 농정평가 대상 수상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유통 중심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18만여명의 농특산물 구매고객 DB를 지역별, 유형별 체계적으로 구축해 평생 고객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 성공했으며, 구축된 고객 DB

는 명절, 햅쌀 시즌 등에 서한문과 농특산물 홍보물 발송에 활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동성 문화에 따라 소비 추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와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입점 확대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강진군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올해 농특산물 직거래 총 매출 목표액 35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247억 대비 매출액이 42% 증가한 수치다.

송승연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강진군이 농정평가에 이어 유통평가에서 수상하게 된 것은 강진군과 농업인이 함께 적극적인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며 "유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농업인 실질적 소득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해피니스컨트리클럽, 나주시에 2000만원 기부

나주시는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이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 가정 자녀를 위한 후원금으로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후원금은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주지역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 자녀들의 인재 육성 장학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은 지역 저소득·장애인 가구 자녀를 위한 인재육성기금 마련과 생활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00만원의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광주·전남지역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회인 특수장학회에도 인재육성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양진석 회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더불어 코로나 장기화와 추운 겨울 날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양진석 회장(왼쪽)이 강인규 나주시시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씨속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소한 위도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2022년 재해예방·수리시설 사업 추진

8개 분야 13건 발굴...총 694억

화순군이 내년도 신규 사업비를 확보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재해예방·수리시설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화순군은 2022년도 신규 사업 13건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694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초부터 정부 정책동향과 예산편성 방향을 분석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사업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사업비를 마련했다.

신규사업으로 화순을 연계 동부생활권 농촌협

약(총사업비 450억원)과 사평지구 대구역 경지정리(55억원)이 선정됐다.

또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재해위험개선지구(50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11억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 3개소(72억원) ▲수리시설 3개소(33억원) 등이 행정안전부 주요 사업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과 특별교부세로 ▲재해위험 교량(15억원) ▲소규모 위험시설 2개소(8억원) 사업비도 확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